

기호의 해석

—의미*의 현상학

박 이 문

현대를 혼돈의 시대라고 하고, 오늘날의 문명의 특성을 정보 통신에서 찾기도 하고, 현대 철학의 큰 경향을 '언어적 전향'으로 일컬어 다른 시대의 철학과 구별하고, 현대 철학의 접근 방법이 사념적이거나 분석적이기보다는 해석학적이라고들 말한다. 정보 통신은 기호에 의한 의미 교환이며, 언어는 일종의 기호로서 반드시 어떤 기호적 의미를 갖고, 해석은 언제나 기호적 의미의 해석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호'를 의미의 전달, 교환, 이해에 사용되는 모든 매체라는 포괄적 뜻으로 사용하고, 문자와 구두어를 포

-
- '의미' 즉 '의미 일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기호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의미에 대한 물음은 분명함, 즉 투명함에 대한 물음이며 탐구이다. 한 의미가 투명해질 수 있는가? 투명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가능한가? 모든 인간이 의미의 투명성을 찾게 마련이라면, 철학은 투명성에 대한 반성적 탐구이다. 한 기호의 의미 *definition*는 어떤 기호를 기호로서, 즉 어떤 의미로서 의미 *intelligible*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인간의 현상학적 사실을 전제한다. 그러나 두 가지 의미는 동일하지 않다. 전자의 의미를 기호적/약속적 *semiotic/semantical/linguistic/conventional*이라 할 수 있다면 후자의 의미는 현상학 *phenomenological*이고, 후자는 전자의 논리적 조건이며 인과적 원천이다. 기호/언어적 의미가 의식에 의해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사실을 지칭한다면 현상학적 의미는 인간의 한 의식 현상을 지칭한다. 기호적 의미와의 혼동을 피해서 현상학적 의미를 편의상 '가지성 *intelligibility*'이라 부를 수 있다. 그렇다면 기호적 의미의 근원적 파악은 현상학적 의미, 즉 '가지성'의 파악을 전제로 한다. 기호적 의미는 '가지성'으로서의 '의미'가 전제되었을 때만 그 뜻을 갖는다. 가지성으로서의 의미는 기호적 의미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의

함한 자연어와 더불어 몸짓과 같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상징 체계나 인위적으로 설정한 신호 체계, 점자, 화학 물질, 상징 기호 등과 같이 여러 분야, 차원, 경우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제정된 상징 체계와, 그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을 다 같이 기호의 범주에 포함하기로 한다.

기호의 범주를 이같이 규정할 때, 현대의 문제는 기호와 그 의미 해석의 문제이며, 현대의 혼동과 위기는 곧 기호적 의미의 혼돈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현대를 위기라고 한다면 그 위기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기호적 의미의 혼돈, 즉 한 기호적 의미의 애매모호한 불확실성에서 찾을 수 있다는 추론도 설 수 있다. 기호적 의미의 이러한 성격과 그것이 동반하는 위기에 대한 의식은 이론적 차원에서 플라톤에 맞선 소피스트들의 수사학에서 이미 드러났었고 더 가까이는 데카르트에서 칸트에 이르는 전통적 철학에 반향한 니체, 후설적 현상학에 비판적인 가다머의 해석학에 의해서 더욱 분명해졌지만, 최근 데리다의 '해체주의'에 의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편 첨단 정보 사회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는 날로 범람하는 기호의 의미를 가능하면 보다 속히 그리고 정확히 전달하고 이해할 필요성에 부딪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호의 '의미'에 대한 새삼스러운 성찰은 이론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실천적인 차원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이 논문이 의도하는 것은 첫째, 기호/의미 구별의 전제와 그 근거, 둘째, 그런 구별의 허구성, 셋째, 기호적 의미 해독의 옳고/그름과 그러한 의미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결단론적 의미 결정론'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들을 밝히고 규정할 수 있는 조건일 뿐 그 자체는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호적 의미 파악의 조건인 현상학적 의미, 즉 '가시성,' 달리 말해서 '의미 일반'은 언어적·사회학적·심리학적 설명과 이해의 대상 밖에서 영원한 침묵 속에 가려져 있다. 박이문, 「기호의 의미: 의미의 형이상학」, 한국기호학회 위음, 『현대 사회와 기호』, 문학과 지성사, 1996 참조.

1. 기호적 의미의 논리적 · 존재론적 구별과 그 근거

I. 기호의 해석, 문학 비평,

언어철학에 전제된 기호와 그 의미의 구별

기호와 그 의미의 위와 같은 구별은 일반 상식, 전통적 해석학, 문학 비평, 언어철학에 한결같이 암암리에 깔려 있는 가장 보편적 신념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의 해석, 의미에 관한 일상적 담론을 비롯하여 언어학, 문학 비평 이론, 예술 작품의 해석과 평가 이론, 해석학, 언어철학의 모든 담론에서 쉽게 드러난다.

‘개’라는 낱말/기호의 의미가 ‘개과의 동물, 사람을 잘 따르고 오래 전부터 가축으로 널리 기르고 있는 동물’ ‘犬’ ‘dog’ ‘chien’ ‘hund’ 등의 다양한 기호로 표시되고, ‘한 여자가 온다’라는 문장/기호의 의미가 ‘한 여성이 어떤 지점으로 가까이 움직인다’ ‘A woman comes’ ‘Une femme vient’ ‘Eine Frau kommt’라는 문장/기호로 전달할 수 있고, 한 텍스트/기호로서의 『도덕경』의 의미가 똑같은 한자로 수많은 해석되어왔고, 한국어 · 일본어 · 영어 등 다른 언어의 번역 텍스트로 바뀌어 그 의미가 해석된다. 이러한 사실은 기호의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기호를 떠난 번역/해석은 물론 지각/생각이 존재할 수 없는 이상, 기호의 번역/해석이란 한 기호를 다른 기호로 대치하는 작업에 지나지 않음을 함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호의 대치가 자동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 ‘개’라는 기호를 ‘소’라는 기호로, ‘한 여자가 온다’라는 문장/기호를 ‘Rose is red’라는 문장/기호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바꾸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곧 번역/해석이라 하지 않는다. 해석에는 해석 대상으로서의 기호적 의미의 완벽한 전달이 이상 *ideal*으로서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는 기호의 기호에 의한 대치는 그러한 이상 *ideal*이 처음부터 부재하기 때문이다. 어떤 해석은 필연적으로 맞는다/틀린다는 판단이 열려 있어야 한다면 그러한 사실은 기호의 의미 해석에 전제된 위와 같은 해석의 이상을

전제해서만 설명할 수 있다.

모든 기호/텍스트의 해석에 전제된 이러한 이상의 존재는 그것이 추구하는 기호적 '의미'의 존재론적 속성에 대한 신념을 함축한다. 필연적으로 감각적 지각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기호와 논리적으로 동일할 수 없는 그것의 '의미'는 비록 감각적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기호로서만 표상되어야 하지만, 그 자체는 결코 감각적인 존재일 수 없고, 감각적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플라톤의 이데아 *idea*에 비유할 수 있는 관념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신념이다. 문학적 텍스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텍스트 이론들이나 철학적 기호/의미론들은 해석의 이상과 기호적 '의미'의 속성에 대한 위와 같은 존재론적 신념의 구체적 표현인 동시에 그것을 뒷받침한다. 문학 텍스트 해석 이론과 언어철학은 한 기호적 의미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작업인 동시에 더 일반적으로 그러한 작업을 위한 방법론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 문학 텍스트 해석 이론과 철학적 언어 분석으로 우리는 해석의 이상, 즉 한 기호/텍스트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미'의 이해에 한걸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 같다.

한 텍스트, 특히 문학 텍스트를 둘러싸고 해석의 옳고/그름, 뛰어남/서투름이 항시 언급되고, 왕필(王弼)의 『도덕경 주석』이 노자의 텍스트 『도덕경』을 가장 잘 해석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다양한 언어, 즉 기호로 대치할 수 있는 한 텍스트의 의미는 그것을 대치하는 기호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유일한 존재임을 전제한다. 구조주의적 문학 작품 해석 이론은 구조주의적 작품 해석 방법인, 심리학적·역사적·사회적·도덕적 등등의 작품 해석 방법보다 한 작품의 의미를 가장 객관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다는 신념에 그 근거를 찾는다.

비트겐슈타인의 '의미론'은 말할 것도 없이 그의 철학 전체가 기호와 그 의미의 관계에 대한 위와 같은 암묵적 신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철학적 문제는 언어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냐를 밝혀보려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무어나 러셀 그리고 모든 이른바 언어분석철학자들과 같으며 아주 멀리는 플라톤의

철학적 과업과도 통한다. 논리실증주의자들이 가령 “꽃은 빨갱다”라는 문장과 “꽃은 아름답다”라는 문장들의 비교적 분석을 통해서 한 문장의 문법적 구조와 논리적 구조의 구별, 언어의 서술적 기능과 표현적 기능의 구별, 언어의 정보적 의미 *cognitive meaning*와 정서적 의미 *emotive meaning*의 구별을 주장할 때, 그들은 한 기호에 객관적 의미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것을 이상적 상태에서 파악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며 그들의 철학적 작업은 실제로 우리가 회미하게 또는 잘못 해석하고 있는 언어/기호의 의미를 한결 분명히해준다.

러셀의 유명한 ‘서술 이론 *theory of description*’도 지각할 수 있는 기호를 넘어 지각할 수 없는 객관적 참된 의미를 찾아내는 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이다”라는 문장에 있어서 문법적 구조상 ‘대머리이다’라는 빈사(賓詞)는 ‘현재의 프랑스의 왕’이라는 주어를 서술한다. 그러나 빈사가 서술하는 주어가 지칭한다고 전제된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서술한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 이 문장의 뜻은 그러나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문장의 총체적 의미가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원자적 기호들의 의미의 파악을 전제한다. 그러나 러셀의 생각에는 한 명사 혹은 명사구가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의 지칭 대상이 실제로 존재해야만 한다. 현재 프랑스 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현재 프랑스 왕’이 의미를 갖는다는 역설적 사실이 설명되어야 한다. 러셀의 문제는 이러한 역설을 푸는 것이었고, 그의 ‘서술 이론’은 이 문제를 푸는 이론을 제공하는 데 그 의도가 있다. 그것은 주어와 빈사/술어의 구조를 가진 문장이 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며, 문법상의 주어가 반드시 논리적으로도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님을 분석해보임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이론에 따르면, 예를 들어 1) “현재의 프랑스 왕은 대머리이다 *The present King of France is bald*”라는 문장의 뜻은 2) “하나의 x 가 있는데 *There is an x* , x 가 현재 프랑스를 통치하고, 모든 y 에게 있어서 *for all y* , 만약 y 가 현재 프랑스를 통치하고, y 가 x 와 일치한다면 *if y now reigns over France, y is identical with x* , 그 x 는 대머리이다 *and such*

that x is bald”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언뜻 보기에, 즉 문법적으로는 주어/빈사의 구조를 갖고 무엇인가를 지칭하는 듯한 구절(*the present King of France*)은 무엇인가의 존재를 언급하는 명제 *existential statement*로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원래의 문장/명제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그 문장/명제에 대한 진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러셀의 서술 이론은 언뜻 그 뜻이 분명치 않은 문장들의 의미를 분명히하고, 양화(量化) 논리학의 기초가 됨으로써 고전적 삼단 논법으로는 밝힐 수 없는 담론/논증의 타당성/비타당성과 진/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었다.

오스틴 Austin이나 설 Searle 등의 언어 행위 이론 *speech act theory*이 보여준 극히 세밀하고 섬세하긴 하지만 기호들의 수없이 다양한 의미의 복잡한 분석, 그보다 훨씬 앞서 프레게 Frege에 의한 외연/지칭적 의미 *Bedeutung/reference*와 내연/속성적 의미 *Sinn/attribute*의 구별에 대한 시원한 분석, 후설의 지향적 의미 *Bedeutung/intention*와 관념적 인식 대상 *Sinn/the ideality of an object*의 구별에 대한 정밀한 분석, 그리고 콰인 Quine, 크리프케 Kripke, 데이빗슨 Davidson, 더밋 Dumment, 퍼트남 Putnam 등 수많은 이들의 다양한 ‘지칭 이론 *theory of reference*’ 등의 여러 가지 철학적 의미론 *philosophical semantics*은 한 기호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려는 다양한 시도이다.

철학적 의미론들은 한 기호/텍스트의 해독/해석자와 독립한 이상적 의미가 있으며, 그것은 해독/해석자가 임의적으로 아무렇게나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탐구 대상임을 한결같이 함의한다. 이같은 철학적 의미론들이 다 같이 전제하는 기호와 그 의미의 논리적 및 형이상학적 차별에 대한 검토는 우선 뒤로 미루어두더라도, 그것들이 각기 서로 다른 각도에서 한 낱말, 한 문장, 한 텍스트의 의미를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보다 선명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철학적 의미론에는 기호와 그 의미의 근본적 구별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언어를 메타포로 보는 니체의 언어철학이나 어떠

한 초월적/대상/의미/기의 *transcendental signified*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데리다의 해체론적 언어철학도 그들의 의도가 기호의 의미를 ‘밝히’는 데 있는 한 그들의 언어철학적 사유 자체는 기호와 그 의미의 차별을 전제한다.

II. 구별의 분석적 증거

기호로 전달할 수 없는 의미를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를 갖지 않은 기호를 상상할 수 없는 한에서 기호와 그 의미는 현실적으로 서로 뗄 수 없지만 기호와 그 의미의 구별은 논리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자명한 것 같다. 기호는 반드시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이며, 의미는 필연적으로 기호의 의미라는 사실로서 기호와 그 의미는 논리적으로 구별되며, 기호가 감각적 지각/경험 대상으로서의 어떤 사물/현상을 지칭하는 데 반해서 그 의미는 비감각적 직관/이해의 대상으로서의 관념/개념을 지칭하는 사실에서 기호와 그 의미는 존재론적으로 다르다.

하나의 언어적 기호, 가령 낱말, 하나의 문장, 하나의 텍스트, 파란색 교통 신호의 각기 의미가 기호 자체일 수 없고, 역으로 하나의 의미가 서로 다른 기호들로 전달될 수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기호와 그 의미가 논리적으로 구별됨을 입증한다. 이러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일상 생활에서 기호가 어떻게 사용되며, 그 의미가 어떻게 파악/이해되는가를 살펴으로써 분명해진다. 한편으로 사전을 열어보면 모든 경우 한 낱말의 의미가 적혀 있고, “개가 목말라한다”라는 문장은 그 맥락에 따라 개가 목말라하는 상태를 전달하는 기술적 기능을 할 때도 있는가 하면, “개에게 물을 주어라”라는 명령적 기능을 할 수도 있고, 텍스트 『도덕경』이나 『햄릿』의 의미가 수없이 많은 해석을 낳는 것도 전자의 사실, 즉 어떤 지각적 존재가 그 자체만으로 기호로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해준다. 다른 한편으로 ‘개’의 의미가 ‘dog’라는 영어, ‘犬’이라는 한문, ‘chien’이라는 불어, ‘Hund’라는 독일어 낱말로, 또 “장미는 아름답다”라는 문장이 “Rose is beautiful”이라는 영어 문장 혹은 “La rose est belle”이라는 불어 문장 혹은 “Die Rose ist

schön”이라는 독어 문장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이나 한 언어로 쓰인 텍스트가 수많은 다른 텍스트/기호로 대체/번역될 수 있다는 사실은 후자, 즉 기호와 그 의미가 구별됨을 증명한다.

‘기호’와 ‘의미’는 실질적으로는 서로 의존하지 않고 따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는 뚜렷이 구별된다는 것이다.

2. 기호와 언어 구별의 허구성

I. 플라톤적 근거의 허구성

그러나 기호와 의미가 논리적으로 구별된다는 주장은 ‘犬’ 혹은 ‘dog’ 혹은 ‘chien’ 혹은 ‘Hund’라는 낱말/기호나 “장미꽃은 아름답다”라는 문장/기호의 “Rose is beautiful” 혹은 “La rose est belle” 혹은 “Die Rose ist schön”이라는 문장/기호가 감각적으로 다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각기 동일한 관념적 의미임을 담은 동의어를 전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전제는 가지적 세계 *the intelligible realm/reality*와 감각적 세계 *the sensible realm/appearance*를 구별하는 플라톤적 이원론적 형이상학, 단 하나 *one*의 보편자 *the universal*로서 존재하는 원형/이데아/관념체와 감각에 속하는 여러 *many* 지각적 개별자들 *particulars*로서 존재하는 복사물/물질/현상들 *copies/appearance*를 구별하는 플라톤적 언어철학, 앎 *episteme*과 의견 *doxa*을 구별하는 플라톤적 인식론에서만 가능하다. 이 같은 플라톤 철학의 맥락에서 ‘犬’ ‘dog’ ‘chien’ ‘Hund’ 등의 다양한 개별자로서의 기호들은 ‘이데아/개’라는 단 하나의 보편자로서의 ‘의미/개’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고, 이런 설명의 틀 속에서 ‘犬’ ‘dog’ ‘chien’ ‘Hund’ 등의 기호들은 한결같이 ‘의미/개’의 복사물이라는 점에서 동의어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누가 플라톤의 철학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언뜻 생각하기에 플라톤은 가지적 세계, 단 하나의 보편자인 실체에 대한

진리를 발견/알고 나서 그것에 비추어 감각적 세계, 여러 개의 개별자들인 현상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의견을 고쳐주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플라톤의 위와 같은 형이상학, 언어철학, 인식론은 우리가 감각적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그 의미의 관계에 대한 논리적 퍼즐 *puzzle*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재미있는 이야기/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또 감각적 세계를 관념적 세계로 설명하려는 한 플라톤의 철학적 근거가 순환적이라면 관념적 '의미'에 기초한 감각적 기호들의 동의성의 설명과, 이러한 설명에 기초한 기호와 그 의미의 존재론적 구별의 논리도 역시 순환적이라는 문제를 갖는다.

II. 기호와 의미 구별의 현상학적 불가능성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완전히 서로 다른 우리말 기호인 '달,' 한자 기호인 '月,' 영어 기호인 'Moon,' 불어 기호인 'lune' 등이 단 하나의 동일한 물체/대상만을 지칭하고, 이런 뜻에서 동일한 의미, 즉 관념적 내용을 갖는다는 것은 자명한 듯싶다. 이러한 것이 확실하다면 기호와 그 의미는 전자가 지칭(記表) *signifier*적 기능을 하는 데 반해서 후자가 그 의미(記意) *signified*의 역할을 맡는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다르고, 전자가 무한히 다양할 수 있는 감각적인 존재인 데 반해서 후자는 단 하나의 동일한 관념적 존재라는 점에서 존재론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은 옳다.

위의 감각적으로 상이한 기호를 접할 때 누구나 한결같이 달/천체를 지칭, 즉 상징/대치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그것들의 지칭 대상이 동일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달/천체라는 지칭체의 동일성을 어떻게 정확히 규정할 수 있는가에 있다. '月'이나 'Moon'이라고 할 때나 'lune'라고 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물리적 달/천체는 물리적으로 정말 엄밀한 관점에서 동일한 것인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어원적으로 '月'이나 'Moon'이라는 기호가 달/천체의 형태를 나타내는 데 반해서 'lune'이라는 기호는 달/천체의 빛을 나타낸다면, 한편으로는 '月'과 'Moon'이라는 기호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lune'이라는 기호가 지칭하는

대상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프레게의 지칭적/대상적 의미 *Bedeutung/referent* 와 지칭/대상의 속성적 의미 *Sinn/attribute*의 구별을 빌려 비유하자면, ‘달’ ‘月’ ‘Moon’ ‘lune’ 이라는 기호들은 달/천체의 각 기호 서로 다른 속성 *Sinn*을 지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 보를 양보하여 ‘달’ ‘月’ ‘Moon’ ‘lune’ 등의 기호들이 동일한 단 하나의 대상을 지칭한다고 일단 가정하더라도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다르고, 언어적으로 전혀 다른 곳에 뿌리박고, 어원적으로 전혀 다른 역사를 갖고 있는 위의 기호들이 엄격한 의미에서 정말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가를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과연 위의 기호들의 의미가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으로만 환원될 수 있는가에 있다. ‘의미’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간에 그것을 인식/이해하는 주체의 의식을 지칭한다면, 의미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에 비쳐진 의미이다. 한 기호의 의미도 마찬가지다. ‘달’이라는 기호의 의미를 그것의 지칭 대상인 달/천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미는 오로지 어떤 의식에 의해 그와 같이 파악되는 한에서만 그 뜻을 갖는다. 그런데 어떤 주체가 ‘달’이라는 기호를 보거나 들을 때에 그의 의식에 떠오른 것은 그것이 지칭하는 천체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외에 수많은 것, 상황·경험·감정 등이 동시에 떠오르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 그것들은 그런 경험을 하는 주체한테는 ‘달’이라는 기호의 의미의 일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논리실증주의 입장에 따라 기호의 의미를 인지적인 의미로 제한하고 그 밖의 정서적 의미는 정말 의미가 아니고 무의미하다고 말하면 그만이지만, 어째서 인지적 의미만이 기호의 의미가 되는가 하는 물음에 아무런 근거도 댈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기호가 필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많은 기호들은 비인지적·정서적 의미를 표상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상기할 때 기호의 비인지적·정서적 기능, 즉 의미는 ‘의미’가 아니라는 주장은 완전한 독단에 지나지 않는다.

‘달’ ‘月’ ‘Moon’ ‘lune’ 이라는 기호들이 지칭하는 것이 동일한 대상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청각적 및 시각적 차이들 때문에 위의 네 가지 기호 중 어떤 기호를 사용하느냐에 따

라 각기 그 기호가 그 기호의 해독자/사용자의 의식에 동반하는 사물이나 사건의 현상들에 따라 경험이나 감동의 구체적 내용, 즉 의미가 무한히 다르다는 것은 가장 엄연한 현상학적 사실의 하나이다. 의미 경험/해독의 이러한 현상학적 사실만으로도 기호와 그 의미가 논리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구별되지 못함은 증명된다. ‘달’을 ‘月’이나 ‘Moon’으로 대신 쓸 때 ‘月’이라는 낱말의 상형성 때문에 그리고 ‘Moon’이라는 낱말의 어감 및 어원적 의미 때문에 우리는 달의 특수한 형태를 먼저 연상할 수 있기 쉬운 데 반해, ‘lune’으로 대신할 때, 그 낱말의 어원적 의미를 알 경우 우리 의식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달의 형태가 아니라 빛일 것이다. 또한 한 낱말/기호의 위와 같은 가변적 그리고 다양한 의미들은 그것이 사용되고 해독된 무한히 복잡하고 한없이 다양한 객관적 및 주관적, 시간적 및 공간적, 역사적 및 문화적 맥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무한히 다양하고 더욱 가변적이다. 요컨대 한 기호의 의미는 그것의 감각적 속성과 한없이 복잡한 수많은 구체적 맥락과 완전히 분리할 수 없고 그러한 가변적인 다양한 조건들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변적이고 다양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낱말/기호의 지칭적 의미가 이처럼 불확정적이고, 그 현상학적 의미가 이같이 다양하고 가변적이라면, 한 문자/기호, 한 텍스트/기호의 지칭적 의미는 한결 더욱 그렇다. 비교적 확실한 언어적 규범의 제약을 받는 언어적 기호의 의미가 이만큼 불확정적이고 가변적이라면 언어적 규범이 불확실한 비언어적 기호, 예를 들어 신호등, 예술 작품, 몸짓 등의 의미는 한결 더 불확정적이고 가변적이다. 이러한 기호적 의미의 상황은 결코 풀 수 없는 문제를 낳는다. 왜냐하면 기호적 의미의 불확실성과 가변성에 대해서 위와 같은 논리를 빌고 나아가면, 한 기호는 무엇이든 의미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이 같은 결론은, 어떤 기호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근본적 조건의 하나는 그 기호가 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인 만큼, 기호는 아무 의미도 갖지 않는다는 역설을 낳고, 이런 상황에서 한 기호의 의미의 옳고/그름은 물론 처음부터 그 기호의 의미를 물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기호의 의미 해석과 그 해석의 옳고/그름 혹은 정독/

오독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정확히 결정할 수 있는가의 물음은 피할 수 없다.

3. 정독과 오독

I. 옳고/그른 의미 해석의 잣대로서의 언어적 약속

‘개’라는 낱말/기호의 의미, 즉 지칭 대상이 아무리 다양하고 가변적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 ‘바위’ ‘달’ 등의 낱말/기호들의 각기 의미, 즉 지칭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실은 기호간의 차별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차별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의미할 수 있다. 기호간의 차별이 기호의 사용이나 해독상의 제약을 뜻한다면 기호적 존재와 그 의미 창출의 가장 원초적 조건은 언어적 제약성이다. 그리고 기호와 그 의미의 규제성은 물리적·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약속적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인류가 상징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인위적, 즉 문화적이지만 암묵적, 즉 거의 자연적으로 언어 공동체에 의해 제정된 언어적 약속에 뿌리박고 있다. 기호의 구체적 사용과 그 의미 해독의 구체적 전제 조건들인 낱말/기호의 발생, 즉 어원론 *etymology*, 낱말/기호들의 조합 법칙인 구문론 *syntactics*, 그러한 것들과 그것들의 지칭/비대상, 상황, 경험, 의도 등과의 관계에 대한 규제, 즉 의미론 *semantics* 그리고 기호/텍스트와 그 사용자, 즉 기호 발설자/기호 해독자의 관계에 대한 규율, 즉 화용론 *pragmatics*도 역시 약속의 산물이고 약속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한 언어가령 한국어를 안다는 것은 한국 언어권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속을 소화하고 있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약속은 필연적으로 규제적이며, 규제적인 것은 제한적이고 제한적인 것은 규범적이다. 기호가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사용의 규범성 때문이다. 이러한 규범의 소화는 기호 사용과 그 의미 해독의 기본 조건이다. 한 기호/텍스트의 옳고/그른 해석, 정독/오독

도 바로 이러한 언어적 규범에 비추어서만 판단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규범은 한 기호/텍스트의 의미의 옳고/그른 해석, 즉 정독/오독의 잣대이다. 한 기호/텍스트의 옳은 해석 혹은 정독은 그 텍스트를 위에서 본 언어적 여러 규칙에 정확히 맞추어 읽었음을 뜻하고 그른 해석 혹은 오독은 그 반대의 경우를 지칭한다. 한 기호 체계의 모든 약속적 규범을 소화함으로써 한 기호의 오독을 피하고 정독할 수 있고, 한 기호의 정확한 의미를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II. 규범의 한계 조건과 의미의 필연적 불확실성

모든 규범은 필연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존재하므로 필연적으로 구체적 사물/상황과 온전히 일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치하지 않을 때만 그 의미를 갖고, 그것이 여러 개별적 사물/상황들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규범과 그 적용상에 위와 같은 조건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규범의 규범성, 즉 규범의 구체적 적용성은 구별의 위와 같은 추상성/일반성 때문에 가능하며, 이러한 추상성/일반성은 그것이 적용되는 사물/상황의 구체성/특수성을 삭제/왜곡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

일반 규범과 어떤 한 사물/현실을 지칭하거나 대신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규범이 구체적 사물/현상/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면, 그것은 구체적 사물/현상/상황의 각기 개별적 속성들을 무시/회생하는 대가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언어적 규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 낱말/기호, 가령 '개'라는 기호가 어떤 언어적 규범에 의거해서 어떤 하나의 구체적 대상, 가령 '위리'라는 특정한 개를 지칭/표상/의미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개에 비추어 그 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속성이 무시/회생되어 일반화된, 즉 관념적으로 추상화된 개로서만 취급되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어떤 기호가 무엇인가를 지칭/의미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삭제/왜곡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호의 본래의 의도가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상하는 데 있고, 그 기호의 의미는 곧 있는 그대로의 대상의 완전한 재현을 뜻한다고 전제할 때,

규범적 존재로서의 기호와 그 대상과의 위와 같은 관계는 기호는 그 대상을 왜곡시켜서 표상, 즉 의미할 때, 즉 표상/의미를 못 할 때만 표상하고 의미한다는 역설을 낳는다. 기호와 그 의미의 관계가 이와 같이 뒤틀리고 역설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상을 표상/의미할 수 있다면 그러한 표상/의미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확하지 못하고 정확할 수도 없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 기호적 의미의 불확실성에 관한 이 같은 결론은 기호의 발신자, 즉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거나 기호의 수신자, 즉 해독자의 관점에서 보거나 똑같이 해당된다. 정독을 언어적 규범에 맞는 기호의 의미 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엄격한 의미에서 어떠한 정독도 필연적으로 일종의 오독이며, 커뮤니케이션은 필연적으로 기호에 의한 의사 전달이라면, 모든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 전달은 필연적으로 약간은 오전이며, 따라서 많은 동의는 완전한 동의일 수 없다. 그것은 기호의 의미가 그것의 사용자에게 있어서나 해독자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즉 원천적으로 불확정적이며 따라서 절대적으로 정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 기호의 정독/오독이나 기호 발신자와 수신자간의 동의/이의의 구별과 그 결정이 전제되고 필요하지 않은 기호 세계, 즉 인간적 세계가 존재할 수 없다면, 그러한 구별과 결정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맞추어 애매모호한 가변적 선에서 적당히 그러나 적절히 결정이 내려진다. 관념/의미 해독의 절대적 정확성/투명성을 위해서 데카르트는 '명석하고 확연한 *clair et distinct*' 함의 기준을 세웠고, 후설은 선험적 자아에 의한 현상학적 '본질 직관 *eidetic intuition*' 을 주장했고, 분석철학자들은 철학의 기능을 '개념(언어적 의미)적 해명 *conceptual clarification*' 으로 보고자 했다. 이러한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피할 수 없었던 기호적 의미의 정확성에 대한 결론은 결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인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과 결정이 한없이 다양한 맥락에 따라 한없이 가변적인 실용적 요청을 그때그때 충족시켜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단 하나의 기호적 의미 전달/해석이 한 경우에는 옳고/정독일 수 있지만

다른 맥락에서는 그릇된/오독으로 여겨진다고 해도 아무 모순이 없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관념은 조금은 언제나 애매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이해하는 기호의 의미는 언제나 조금은 모호하며, 우리는 실천적인 차원에서 언제나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진/위, 정독/오독, 동의/이의를 실용적으로 결정해왔으며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다.